

AUTHOR 신내리

TITLE 교회에서의 여자의 위치

IN 개혁주의

57호 (6, 1973): 33-43.

教會에서의 女子의 位置

신 내 리 (미국 독립장로교신교사)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자가 가지는 직분 문제는 과거 몇년동안 여러 주요 종파들이 연구해왔으며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문제인 것이다. 1955년 미국 성공회는 그들 교회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자들의 투표권 조항을 삭제했다. (성공회 지년에 "Journal of the General Convention of the Protestant Episcopal Church". 1955, pp, 201, 202) 1955년에 미국 북장로교 총회는 여자들의 목사직 임명을 승인했다.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Philadelphia,

1955, pp 95-98) 미국 남장로교회는 그들의 1963년 총회에서 여자들이 안수집사, 장로, 목사가 되게 하는 제안을 승인했다. (Time Magazine, May 10 1963 p 42). 1956년 감리교회는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그들의 모든 성직에 동등한 법적지위를 허용하였다. (Daily Christian Advocate, May 7, 1956, pp 520-533). 이것은 지금 감리교회에서는 기독교회에서와 같이 여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남자와 같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루터파 교회의 미조리 지방회의는 3년동안 특별히

인구만우 이사들의 투표권으로 계속 거절하기로 결정하였다. (Proceedings of 43rd Regular Convention of The Lutheran Church, Missouri Synod, St. Louis: Concordia, 1956 p 569)

로마 천주교회가 교회안에서 여자 발언권 허용을 언제나 반대해 왔다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정통장로교회, 복음장로교회, 개혁장로교회, 기타 장로교회들도 여집사나 여장로를 가지지 않는다. 침례교와 같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는 여집사, 여목사가 없으며 반면에 신학적으로 자유적인 교회들은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 삼대교단인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는 모두 다 여집사, 여전도사를 두고있다. 여자들이 잡고 있는 지위는 다양하다. 감리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목사와 장로의 직책을 맡을 수있다. 이론적으로는 여전도사의 하는일이 주로 개인전도와 여자부흥집회에서 부인들을 복음화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 심방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남녀가 참석하는 부흥집회와 성경공부시간을 자주 인도하게된다. 여집사의 직책도 남집사의 직책과 똑같다. 본 문제와 관련있는 중요한 귀절의 고찰

그러나, 첫째로 생각할 귀절은 고린도전서 11:5인데 교회예배에서 여자들이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이 귀절을 자주 인용한다. 이 귀절은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자는 그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이다. 러셀 프롤 (Russell C. Prah)은 그의 저서, "교회와 여자" (Woman in the church)에서 주장하기를 여기에 여자는 결혼한 여자를 말하며 기독교인의 아내가 교회봉사하는 일을 도울때 진실한 아내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 (p. 31). 프롤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리고 여자도 기도하고 예언할수 있는데 그것은 예배의식 집행을 말한다. "(p. 29)고 한다. 그는 말하기를 이와같은 예배 형식은 "사랑과 성만찬, 사랑의 잔치, 주의 만찬등에 관련하며 잔치는 주의 만찬과 함께 절정에 달한다. 이것은 제한될 예배이며 신인교인들만이 초대된다. 이와 관계없는 자들이 참석하지 않는 이 예배에서 믿는 아내는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데 남자와 연합하도록 허락된다"고 하였다. 요한 칼빈은 그의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 교훈에 대한 그것의 의견을 지적한다. "바울이 여자가 머리에 쓴것을 벗고 예언하는 것을 금한것이 쓸데없는 것같이 여겨질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그는 어느곳에서도 교회에서 여자가 말하는것을 완전히 금하고 있다. (딤후2:12)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머리에 무엇을 썼다 하더라도 예언하는것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며 여기서 머리에 쓰는것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 아님을 알것이다. 또 여기서 사도가 어떤 사람을 책망하므로 다른사람에게 까지도 권장하고 있지않다는 대답을 받을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이 머리에 쓴것을 벗고 예언하는것을 허락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귀절 즉 14장에 이런 악덕에 대한 책망을 보류시키고 있는 것이다.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John Calvin,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nburgh 1848 p. 356) 찰스 하지 (Charles Hodge)도 이점에 있어서 칼빈에 동의한다. (Elicott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7, Shore Zondervan, Grand Rapids, 1954, p 327.) 이 귀절안에서는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권리를 허가하고 있지않다.

서 14:33~35이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합과같이 여자는 교회안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것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이 귀절의 새 영어 성경번역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회중에서와 같이 여자들은 모임에서 말하지 말찌니라... 여자들이 공회에서 말해야 한다는것은 무례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주석책마다 34절에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합과 같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표준 성경 번역과 개정 표준성경 번역판(A. S. V., R. S. V.) 둘다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합과 같이"라는 말을 34절과 관련을 지어 새로운 항목으로 시작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당시 기타 모든 기독교회의 노선을 따라 지킴으로 교회안에서 여자들이 잠잠케 하라고 고린도교회에 명한 것이다. 찰스 하지도 말하기를 "어느 기독교 회에서도 여자들에게 공중설교를 허락하지 않는 사실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것이 비 기독교적이며 다시 말해서 기독교 정신에 위배라는 것임을 말하는, 강한 증거가 된다.

만이 아니라 이성과 성서의 권위로 그것을 금하고 있다. ... 구약성경에는 "너희 자녀들은 예언 할지니라"고 말씀되어져 있는데 사도 베드로가 사도 행전 2:17, 21:9의 언급에서 오순절날에 입증한 바와같이 인용하고 있는 예언은 예언했던 빌립의 네 딸에게 한것이다. 사도 자신은 11:5에서 여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아 행하도록 허락한 것같이 느껴진다. "그러므로 금지된것은 이 은사를 공중앞에서 행하는것만이다. 이 금지의 합당한 근거는 여자가 공중의 교사로서 나타내는 것이 여자가 남자에게 지켜야할 종속(순종)의 관계에 위배된다는 사실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와같은 규칙을 채용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소개한 습관과 같은것은 가정 사용법에 모순이 되는것이다. 성경의 근거는 율법에 이른것같이 라는 말에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약성경에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다.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필연적 종속 교리는 뚜렷하게 들어나보인다." 계속해서 하지는 35절에 분명히 보여진 바와같이 여자들이 어떻게 배워야 할까를 설명하고 있다.

"여자들의 지식욕은 억압할수없고 그것을 획득하는 재간이"그들을 거부하지 않는것이다. 그렇지만 여성들의 고상하고 우아한 아름다움은 잘 보존되어야 할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바를 공중앞에 나서지 않고 배울수 있을것이다. 왜냐하면 여자가 교회안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사용된 수치라는 말은 aischros 인데 적절한 뜻은 "추한" "기형적"을 의미한다. 그것은 토론을 유발시키는 어떤것에도 마찬가지다. 여자의 특징과 장점은 존경과 애정의 대상이 라는데 있음으로 이와 반대되는 감정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진것은 바로 그 이유때문에 무엇이나 피해야 할것이다." (찰스 하지, 고린도전서 주석, 어드만사판, 1959, pp 304, 305) 칼빈은 본 성경본문의 시작을 고린도전서 14:33하 "모든 성도들의 교회에서 합과같이"라는 말에서 시작함으로 똑같은 입장을 취했다. 칼빈은 강조하기를 "고린도교회가 이러한 과오에 전염되어 여자들의 다변을 거룩한 집에서도 허락하였거나, 그렇게 할수있는 충분한 자유를 허락하였음이 분명하다"고한다. 이리하므로 바울은 예언을 하기위해서나 가르치기 위해서나 공중앞에 여자들이 말하는것을 금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 예배나 잘 조직된 교회가 있는 장소에 관하여 이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왜 여자들은 가르칠 수 없으며 아직도 남자들에게 종속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일어날 것이다. (프롤(Prahl)은 고전 11장, 14장 딛전 2장에 언급된 여자들은 결혼한 여자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은 답하기를 가르치는 직분은 교회안에서 최상의 것임으로 결국 종속과 부조화된다. 한 구성원에 종속된 사람이 전단체를 의거해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 되겠는가? 그다음 부조화의 문제인데 만일 여자들이 종속하에 있다면 결국 공중앞에 가르치는 권위는 금지되어 있다. 바울사도의 이유는 단순하다. 즉 가르치는 권위는 여자가 가르친다면 모든 남자를 의거한다는 것이 되는데 실제로는 종속하에 있는 것은 여자이므로 여자가 처해있는 위치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다. (Commentary on First Corinthians, Calvin Translation Society, Edimburgh 1848. pp467,468) 루터파 학자 렌스키(R.C. Lenski)는 예언하는 것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동일시하여 여자들에게 관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가진 것에 관계없이 실

제로 바울의 금지는 바로 그것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Interpretation of 1 & 111 Corinthians, R.C. Lenski Olumbus, Wartburg, 1946. p 615)

여성도들에 대한 성서적 명령은 교회일에 있어서 (즉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남자위에 권위를 가지지 말고) 순종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에게 속하기까지 하라는 것이다. (만일 남편이 기독교인이거든 남편한테서 배우고 남편이 불신자이거나 거룩한 생활로 남편을 회개시키게 할 것이다. 고전 7: 13-16) 그다음 디모데전서 2: 11-15를 고찰해보자 "여자는 일컬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찌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해와가 그후이기 때문이니라" (11절-13절). 칼빈은 진술하기를 "의복에 관해서 언급한후 그(바울)는 지금 예의바른 여자들이 거룩한 공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행위를 부연하고 있다. 첫째로 그들에게 그는 조용히 배우라고 했다. 조용함은 침묵을 의미함으로 그들은 공중앞에서 말하는 책임을 지지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그가 직접 더 분명하게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을

그들에게 금하고 있다. 그는 가정교육임무를 여자들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남자에게만 준 가르치는 직분에서 제외할 뿐이다."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John Calvin. Edim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8, p 67). 어떤 이는 성서역사에서 하나님이 몇몇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 뿐만 아니라 통치까지 하도록 임명하셨다고 말함으로 반대할지 모른다. 이 예는 사사 도보라와 (사사기 4: 4) 왕후 에스더이다. 칼빈은 이러한 반대에 답변하기를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성경에 있는 그의 규칙에 예외라고 한다.

13절-15절을 통해서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규칙에 두가지 이유가 뚜렷이 있다. 첫째는 창조 순서이다. 둘째는 그녀의 죄로 결과된 형벌이다. 또 여자는 남자의 동반자가 되도록 아담의 몸으로 부터 창조되었고 그에게 자녀를 낳아 추도록 창조되었다. 이 귀결의 성경본문에 관하여 헨드릭슨(Hendriksen)은 말하기를 "여자창조에 의하여 그에게 적합하지 않은 활동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새물 물속에 거하지 말게하며 물고기가 육지

에 살지 않게하며 여자가 공중에 배에서 설교함으로 남자를 주관하려 하지 않도록 하자. 그녀 자신과 교회의 영적부리를 위하여 이러한 부정한 간섭은 신적 권위로써 금한다. 여자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법아래 늘 두어야 한다 구원의 모든 축복에 있어서 공유자로서 남자와 함께 여자가 충분히 영적공유권을 가지는 것은 (갈 3: 28, "남자나 여자가 다 차별없이") 여자로서 그의 본성에 있어서나 여자로서 실행하도록 소명받은 동일한 과업에 있어서 어떤 근본적 변화물 의미하지 않는다. 여자는 여자로서 여야 한다. 그의 어떤 것도 바울은 허락할 수 없었다. (고전 13: 34) 거룩한 법이란 것은 5경에 나타난바와같이 그의 뜻이며 특히 여자창조와 타락의 이야기에 나타나있다. (특히 창세기 2: 18-25, 3: 16을 보라.) 그러므로 공무상 공인된 태도로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은 여자에게 옳지 않다.

여자는 주인의 역할을 맡아서도 안된다. 인간의 짝을 지어 줄때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다. 그뿐아니라 해와의 창조도 아담을 위해서 그의 조력자로서(창 2: 18, 25) 그의 영광이 되게(고전 11: 7-9) 했다. 양자가

없이는 완전함이 있을수없다. (고전 11:11).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 지혜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는 이끌고 여자는 따라 오고, 남자는 진취적이며 여자는 감수적이고, 남자는 발명해내고 여자는 남자가 발명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셨다. 추종하는 성향은 해와가 그의 창조자 손에서 되어나올때 그의 영혼속에 자리를 잡게되었다. 그러므로 공중 예배와 관련하여 이 질서를 전도시키는것은 옳지않다. 왜 여자가 자기본성과 반대되는 일들을 격려 받아야 하는가?...

"여자는 가르치지 않고 배우게 하며 다스리지 않고 순종케하며 지도하지 않고 따르게 하자"(The Epistles to Timothy and Titus, William Hendriksen London: The Banner of Truth Frust, 1959, pp 1109 & 1110).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 있는 귀절로부터 여자는 교회 공중예배에서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았음을 보이려고 하였다. 이제는 하나님이 임명한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 그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교회내에서 여자들의 위치를 논하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이 명하신 교회의 지도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여 자

기교회를 지도케 하였을까? 베타적으로 어떤 직분이 남자를 위하신가? 또 어떤 직분이 여자에게 주어졌는가?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족장들, 모세, 아론, 제사장들, 예언자들, 사사들, 왕들을 다스리고 지도하는 데 쓰셨다. 언급된 사람들 거의 모두가 남자였다. 여사사(드보라), 왕후(에스더)의 몇몇 예외는 있으나 그의 거의 모두가 남자였다. 남자들은 자기 가족 뿐만아니라 하나님의 사업까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임명한 용납된 지도자들이었다. 남자는 모든 가족의 활동과 행위에 책임을 다 졌다. 자기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남자의 할 일이었다.

이러한 본보기를 아브라함과 그의 족장들에게서 볼 수 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나의 집은 주를 섬기리이다"라고 할때도 자기 전 가족에게 말했던 것이다. 이와같이 신약성서에도 임명된 지도자들은 남자였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남자였다. 성령강림이후 그리스도께서 선교사업을 하도록 보내신 사도들도 그러하였다. 모든 첫 선교사들중에 아마 제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남자였다. 윌리엄 로빈슨 박사는(Dr. William Robinson) 그

의 논문에서 "교회내에서 여자들의 지위에 관한 성서적 연구"(The Presbyterian Journal, April 12, 1962 p 7)에서 그리스도 부활의 책임있는 증거가(고전 15:35), 마찬가지로 사도 행전 6장에 일곱집사는 남자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제 집사 장로의 직분들에 대하여 언급한 조건 가운데 남자만이 거기에 적용될수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장로 직분 연구에서는 먼저 디모데전서 3:1-7, 디도서 1:5,9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미쁘다 이 말이여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일을 사모한다 함 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하므로 복종케하는 자라야 할찌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찌니 교만하여 쳐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자라야 할찌니 비방과 마귀의 울무에 빠질까 염려하라"이귀

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직책을 취하게 될사람으로써 남자를 말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예를들면 그는 장로에 관해서 한 남편인것으로 말한다 그는 장로가 맡은 일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것임을 추론하면서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할 사람으로써 말하고 있다. 그 앞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금했었다. 더우기 그는 장로는 자기 권속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가 가정의 영적 머리이며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임을 가르친다.

바울은 장로가 되고자하려면 하나님의 권속을 다스리려고 하기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권속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 다음 이와 관련이 있는 평행귀를 살펴보자. 디도서 1:5-9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찌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망할것이 없고 제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

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기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근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테전서 3장의 경우와 같이 역시 바울은 이 귀절에서도 장로는 남자여야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시 그는 장로는 자기 권속을 다스리는 자로써, 한 남편으로써 말한다. 또 가르치고 다스릴 분으로써 말한다. (6절, 7절).

사도행전 6:16절에서 우리는 집사들이 가난한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도록 택함을 받은 것을 본다. 일꾼 신령한 남자들은 사도들이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마음을 기우리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되었다. 디모테전서 3장의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이와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찌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보고 그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오. 여자들도 이와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찌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찌니. 집사의 직분을 잘 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8-10절, 12절과 13절은 분명히 남자에게만 말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집사의 직분을 말할때 가르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암시도 주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11절에서 바울이 말한 "gunaikas"라는 말의 해석 문제다. 이 회람어 말은 일반적으로 "여자" 혹은 특별히 "아내들"로써 해석할 수 있다. 킹제임스 번역(The King James Version)과 버클리 번역(Berkely Version)을 포함하는 몇몇 영역판은 이말을 "아내들"로써 번역한다. 다른 번역판 위이모스(Weymouth)의 "현대어 신약성경"(The New Testament in Modern Speech)도 그것을 아내들로 해석하고 있다. 루터와 칼빈도 이말은 아내들과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킨다고 말했다. 어떤 해석가들은 이말이 여집사를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본필자도 아내로 해석되는 것이 제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이것이 여집사를 의미한다면 바울이 남자를 가르킬 때 남집

대한 회람어를 사용하면서 여집사에 대한 회람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아내는 가족의 한 부분이므로 아내를 가리킨다고 보는것이 자연스러울것 같다. 같은 장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장로나 집사이면 자기 권속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는 특히 장로와 집사의 경우에 가족을 말할때 자녀들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내의 성격을 기술한 것으로 보는것이 자연스러울것 같다. 헨드릭슨은 여자라는 말의 뜻을 일 혹은 사업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그것이 집사의 직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고 동등하게 취급하는 "여집사의 직분"인 교회내에서 셋째 직분이나 여집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다. 여집사의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끔 로마서 16:2과 딤후 5:9을 이 귀절과 함께 인용한다. 헨드릭슨은 지적하기를 로마서 16:1에 나오는 회람어 단어 "Diakon"이 "종"이나 "조수"(조력자)를 의미하는 보편적인 뜻을 제외하고 그외 무엇을 의미할 수 있는지 증명할 적당한 이유가 없다.

로마서 16:1과 같이 마태 22:13, 23:11, 마가 9:35, 요한 2:5, 2:9, 12:26에서 "diakonos"는 "종"을 뜻한다. (Youngs Analytical

Concordance to the Bible, Robert Young, New York, 1936, p863).

영(Young)은 빌 1:1, 딤후 3:8, 3:12만이 봉사자로써 집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말한다. 집사 직분에 관해서는 단지 딤후 3:10, 3:13만을 든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어 성경에는 로마서 16:1에 쓰인 "diakonos"라는 말이 일하는 사람을 뜻하는 일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필자는 성경이 권위와 지도자의 직분에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과 동등한 여자들의 직책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는 교회사업에 있어서 여자들의 일정한 지위가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성경이 결혼한 여자에 대하여 그녀의 제일 중요하고 첫째가는 지위와 임무는 가정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여자들을 대규모로 이용하셨다. 예를들면 사무엘의 모친 한나, 세례요한의 모친 엘리사벳, 디모테의 외조모 로이스, 모친 유니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같은 경건한 어머니들은 모두 신앙이 충만한 여자들이었으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어머니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분들이다. 이부인들은 교회에서 높은 지위나 권위의 직분을 잡지 않았지만 자기 자녀들

을 성경 말씀에 따라 양육하고 하나님 사업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으로 교회사업에 크게 공헌 하였던 것이다. 사도행전 9 : 36에서 누가도 선행이 충만한 여자 도르가 (Dorcas) 를 들고 막달라 마리아는 아마무덤에서 그리스도를 찾은 첫번째 사람이었을 것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성경에서 가끔 여자들은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언급되어있다. 특히 바울은 롬 16 : 1에서 교회의 중으로써 뫼뫼에게 문안한다. 우리는 교회의 중이었던 브리스길라와 그의 사람들을 말할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의무가 있다. 이러한 예는 가정을 돌보며 다른 부인들에게 증거하며 병중에 있는 여자들을 돌보며 구제하며 자녀 교육을 도우는 일들이다. (딤후전, 5 : 9 - 16에 바울이 과부에게 도움만한 일을 말할때 여자에게 적합한 선한 사업을 말하고 있는것을 참고

할것). 특별히 나이 많은 여자들이 힘써 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창녀 전도라든지 또는 여자층의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본인은 본 논문에서 교회안에 여자들의 성서적 지위가 남자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보다 오히려 섬기는 것이며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보다 조용히 배우는 것임을 보이려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남자보다 덜 중요함을 뜻한다고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교회안에서 상이한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갈라디아 3 : 38에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안에 우리의 영적관계에 관하여 남녀 차이가 없음을 진술한다. "예수 그리스도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 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없이 다 하나이니라."

聖靈降臨을 위한 기도의 妥當性與否

심 산

네델란드의 유명한 정치가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그의 책 "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성령의 역사), 180페이지 下端에 말하기를 "教會가 성령 강림의 반복을 원하는 기도를 오순절에 드리는 것은 無意味하다"(hoe weinig zin het heeft, om op den Pinksterdag met de gemeente te bidden, dat de uitstorting van den Heiligen geest zich herhalen mocht in ons midden)고 한 후 또 이어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결국 五旬節 異蹟을 否認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미 오셨고, 우리 가운데 계신이는 또 다시 우리에게 올 수 없기 때

문이다"(Wie dat bidt, die loochent eigenlijk het Pinksterwonder. Immers, wat kwam en bij ons is, kan niet meer tot ons komen.)

果然, 五旬節 聖靈 降臨과 같은 歷史的 事實은 다시 되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이 에루살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이 갈라져 각 사람위에 특히 사도들에게 임하시므로 여러 地方 方音으로 福音이 전파되었다"는 의미에서 單回的이다.

使徒들에게 임하신 보혜사 성령의 特別한 役事를 우리는 認定한다. 그러나 한번 오신 성령은 다시 오실 수 없는 분일까?

問題의 要點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성령이 다시 오실 수 있